

KODEX 단기채권 ETF (153130)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5월31일 기준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5-2ETF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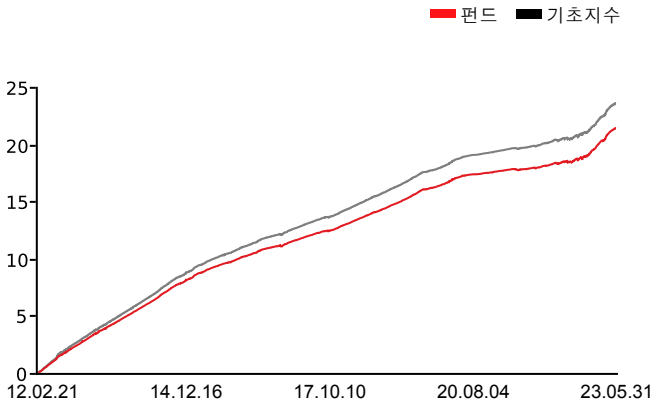
1년 미만 국고채, 통안채 등으로
구성된 KRW Cash Index(총수익)의
수익률을 추적하여 투자신탁재산을
운용하는 ETF입니다.

누적수익률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DEX 단기채권	0.18	0.92	1.77	2.51	21.53	1.48
기초지수	0.17	0.93	1.82	2.57	23.69	1.55
기초지수 대비	0.01	-0.01	-0.05	-0.06	-2.17	-0.07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(%)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상위 종목(%)

종목명	만기일	쿠폰(%)	비중(%)
통안03330	2024년07월02일	3.40	17.23
KODEX KOFR금리액티브(합성)		0.00	13.29
통안01030	2023년06월02일	2.14	12.65
KODEX 23		0.00	11.11
국고01000	2023년06월10일	2.22	8.05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6(매우 낮은 위험)
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※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지수소개

FnGuide에서 발표하는 KRW Cash 지수(총수익)는 잔존만기 1년 미만 국고채, 통안채 중 발행잔액 및 직전 1개월 평균 거래량 상위 30종목, 지수 듀레이션 0.3년 이상 0.5년 이하가 되도록 비중 조절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. 2006년 1월 2일(100 포인트)를 기준으로 2011년 8월부터 산출/발표해오고 있습니다.

※ 정기변경: 연 12회(매월)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단기채권증권 ETF[채권]
기초지수	KRW Cash Index 총수익지수
펀드순자산총액	8,615.38억원
1주당 NAV	106,022.45원
총 보수	연 0.15%(지정판매 0.02%, 집합투자 0.11%) (신탁 0.01%, 사무수탁 0.01%)
최초 설정일	2012.02.21
상장일	2012.02.22
분배	분배금 발생 시 연 1회 지급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펀드파트너스
수탁은행	한국씨티은행(삼성투신)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1,000주
거래소코드	153130
ISIN코드	KR7153130000
블룸버그 Ticker	153130KS <Eq>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.	

알려드립니다

■ 2010년 7월 1일부터 본펀드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
■ KODEX 단기채권 ETF는 대표적 안정 자산인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한 1년 미만 국고채권과 통안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이상적인 투자대상입니다.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